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경허 선사(7)

몰되, 소가 되는 이치가 뭔데?

답하되, 콧구멍 뚫을 데가 없으면 된다

1879년 11월, 경허 스님이 동학사 조실 방에서 '여사미거 마사도래(馬事未來: 나귀의 일도 가지 않았는데 말이 도착했다)' 화두를 들고 웅망정진한지 석 달이 지났다. 동짓달 보름째였다. 그때 동은(東隱)이라는 사미승이 스님의 시봉을 들고 있었다.

어느 날, 만화 스님의 제자이자 경허 스님의 사형인 학명(學明) 스님이 동은의 부친인 이 처사를 찾아갔다. 학명 스님을 보고 이 처사가 풀었다.

"요세 동욱(경허) 대사는 뭘 하나?"

"그저 방 안에서 초처럼 앉아 있습니다."

"중노릇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치를 아는가?"

"소가 되어

마사도래' 화두는 중국 위양종의 영운지근(靈雲志勤·771-853) 선사에게서 비롯됐다. 어느 때 한 수좌가 영운 선사에게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나귀의 일도 가지 않았는데 말이 도착했다"고 대답한 공안이다.

경허 스님이 '콧구멍 뚫을 데가 없다(無穿鼻孔處)'는 말에 이 공안을 타파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콧구멍 뚫을 소'가 '불법의 대의'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뜻일까.

원래 '콧구멍(鼻孔)'이란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한 불성(佛性)의 기미를 의미한다. 중국 법안종의 종주 법안(法眼) 선사의 어록에 '콧구멍 없는 소(無穿鼻孔處)'라는 표현이 실려 있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겨날 때 코가 먼저 생기며, 오랜 중에서도 콧구멍이 먼저 뚫린다고 본 데서 '콧구멍'은 불성, 본분(本分), 본각(本覺)에 비유되었다. 때문에 해탈한 모습을 '콧구멍이 아주 누룩해졌다(鼻孔粟垂)'고도 표현했다. 즉 콧구멍이 인간이 본래 지닌 불성을 뜻한다면, '콧구멍 뚫을 데가 없는 소'란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해석일 따름이다.

토크의 막힌 벽처럼 그를 가두었던 미망의 그물이 산산조각 나면서 경허 스님은 이제 당나라와 말의 일지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된 것이다. 고패를 풀 콧구멍이 없는 소는 이리저리 끌려 다닐 일이 없다. 그 자신이 바로 바로 자유와 해탈 자체인 것이다. 경허 스님이 절집의 관례를 깨고 스스로 법명을 '깨달은 소', 즉 성우(性牛)라고 지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경허 스님이 '여사미거 마사도래' 화두를 타파한 기연이다. '여사미거

**콧구멍은 불성 · 본각의 의미**  
**새삼 깨달을 진리 따로 없어**  
**경허 스님에 오도 제공한 문답**

실려 있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겨날 때 코가 먼저 생기며, 오랜 중에서도 콧구멍이 먼저 뚫린다고 본 데서 '콧구멍'은 불성, 본분(本分), 본각(本覺)에 비유되었다. 때문에 해탈한 모습을 '콧구멍이 아주 누룩해졌다(鼻孔粟垂)'고도 표현했다. 즉 콧구멍이 인간이 본래 지닌 불성을 뜻한다면, '콧구멍 뚫을 데가 없는 소'란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해석일 따름이다.

토크의 막힌 벽처럼 그를 가두었던 미망의 그물이 산산조각 나면서 경허 스님은 이제 당나라와 말의 일지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된 것이다. 고패를 풀 콧구멍이 없는 소는 이리저리 끌려 다닐 일이 없다. 그 자신이 바로 바로 자유와 해탈 자체인 것이다. 경허 스님이 절집의 관례를 깨고 스스로 법명을 '깨달은 소', 즉 성우(性牛)라고 지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경허 스님이 '여사미거 마사도래' 화두를 타파한 기연이다. '여사미거

김성우 객원기자

# 염라대왕이 밥값 달라면...그때 후회할건가?

## 봉은사 '월암 스님의 간화정로...' 5백여 불자 '禪바람' 향긋~

"형상의 부처에게 잡혀서 말고 마음부처에게 잡혀주세요. 자기 마음과 더불어 생물이자 활불, 본래불, 미래불인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 맞잡하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오후 7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문을 연 '월암 스님의 간화정로(禪話正路) - 간화선을 말한다' 주제의 법회에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백여 대중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서울 불자들을 대상으로 첫 법회에 나선 월암 스님(법호사 선원장)은 "선(禪)은 지금 여기,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이 '실체(實體)'를 직하(直下)에 도달(了達)해, 고통을 행복으로 돌려쓰는 깨어있고 열려있는 삶 자체"라며 대중들의 정진을 촉구했다. 법문 중간 중간에 실생활 속의 수행을 언급하며 본래 부처(本覺)로서 부처행(佛行)하며 살 것을 당부하는 대목에서는 신도들이 박수를 치거나 웃음으로 화답한다.

### # 선종 수사찰의 수행 열기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 한 복판에서 열린 선법회에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법문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는 것은 이례적인 광경이다. 서울 강남에서도 선(禪)바람이 불었다고나 할까. 여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수좌 출신의 명진 스님이 새 주지로 부임하면서 '선종 수(僧)사찰' 봉은사에 수행법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수행 · 휴식 도량을 가꾸기 위한 주지스님의 중장부사 1000일기도 중 107일째를 맞은 가운데, 월암 스님이 지난 해 9월 8-18일 지리산 벅스사에서 복원한 선회(禪會)를 봉은사에서 다시 열면서 선종(禪風)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선회는 선교겸수(禪教兼修)와 참선



월암 스님의 강의 장면

의 생활화를 위한 월암 스님의 원력을 실감한 자리였다. 석 달 간의 겨울안거를 마치고 나온 수행자가 당신의 정진에서 얻은 힘을 나눠주자고도 하려는 듯 '곧 꾸루 잡는 선이 아닌 자신(自心) 속에 살아 움직이는 선'을 힘차게 역설했다.

"한 생각(一念) 일어나면 생(生)이요, 한 생각 멸하면 사(死)이니 일념생사요 일념윤회인 것입니다. 하루 낮 · 밤에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난다는 '일일일야 만사생생(一日一夜 萬死萬生)'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잘나지간에 생사윤회가 일어나기에, 선은 일념해탈을 강조합니다."

선이란 삶을 떠날 수 없고, '한 생각(一念)'을 떠나 말할 수 없기에, 한 생각 일어나는 즉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법문의 요지이다. 곧 한 생각 일으킬 때 번뇌 ·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일념해탈'과 '일념성불'을 뜻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념윤회에 너무나도 익숙한 프로들이다. 한 마디 좋거나 나쁜

심시불(師心是佛)을 말했고, 임제 스님은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는 '즉인즉불(卽人卽佛)'을 설했다.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깨닫는 것이 참선이고, 마음이 본래 없는데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 것이 참선인 것이다.

월암 스님은 "법당의 등상불에게게는 정성껏 절하면서 본래불, 미래불인 살아있는 부처에게는 시기, 집투를 쉬지 않으니 이는 불공을 잘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육조단경>에서는 "내 마음이 밝으면 부처님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마음 썸썸이(用心)'가 바늘 구멍만해서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서산 대사는 '천계만사량(千計萬思量)이 홀로일점설(紅爐一點雪)'라 했다. 천 가지 계교와 만 가지 사랑분별이 붉은 화로 위의 한 점 눈과 같다는 것이다. 평생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 수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결국, 마음공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임을 스님은 이렇게 표현했다.

"염라대왕이 밥값 계산하는 것은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갑자기 염라대왕을 만나 혼비백산 하지 말고 태평한 시절에 일념, 일심, 한 물건(一物)이 무엇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고 하는 화두를 쟁야 합니다. 참선은 일심, 한 물건을 찾는 괴할 수 없는 여행입니다."

### # 단비같은 심지법문에 매료

선은 딱딱하게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숨 쉬고 내뿜는 일념지간에 안심(安心)이 곧 불심(佛心)이라 말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삼체는 오직 일심이니, 마음 밖에 별다른 법이 없다. 마음, 부처, 중생이 일심으로 평등하다(三體唯一心 心外無別法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설한 것도 이와 같다. 마조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즉

공부뿐'이라는 것이다.

가지가지의 완곡한 비유와 삶의 예화를 곁들인 월암 스님의 선법문은 움츠리고 닫혀있던 불자들의 마음에 단비를 뿌려주는 심지법문(心地法門)이었다. 20년간 이곳저곳의 시민선방에서 참선했다는 보경(51·개포동) 보살은 "수행자인 대승보살은 언젠가는 본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법문에 환희심이 났다"면서 "번뇌 · 망념을 버리고 진여 본심으로 돌아가(捨妄歸眞) 본래부처로 부처행하며 사는 것이 참선임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회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총 9회 동안 진행된다. (02)511-6070 김성우 객원기자

### 수행기시판

#### 현정선원 일불승 공부

서울 현정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3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에 정기법회를 연다. 현정선원 대우 거사의 법문을 통해 곧잘 자기의 마음을 밝히려는 공부로 나(我) 없고, 함이 없는(無爲) 자리로 직입하는 조사선의 일불승(一佛乘) 도리를 체득하도록 한다. (02) 582-9371

#### 강진 백려사 무문관 체험

전남 강진 백려사는 해저7기간 동안 무문관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수행기간은 1박2일, 2박3일, 4박5일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 5명까지 인당할 수 있다. 1일 1실에서 절대 묵언하며 참선위주의 수행체험을 하게 된다. 마감은 5월 6일이며 선착순 모집. (061)432-083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이별터 마스터 김희경  
 전담주최는 본래의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으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협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 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도산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라도 모르는 험한세상 님치, 강도, 살인,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포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열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열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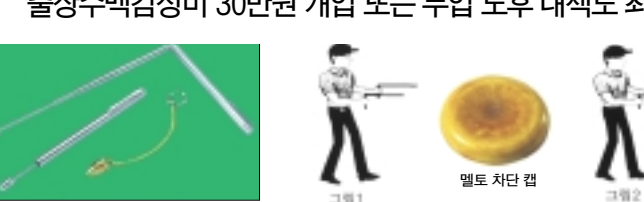
## 평생부자 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세요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최고



수맥파가 각종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속속 밝혀지고 조상의 산소 밑에서 수맥이 흐르고 있다면 집안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일간 신문 특집세리지를 본 분자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에도 우리집 밑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조상 산소밑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수맥감정문의가 신신사 에 줄을 잇고있다.

## 옴마니반메흠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일들이 신통토동하게 풀린다는 신탁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옥자대명 왕진인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면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토동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왔다.** 구입하지 보듬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개운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풀리고, 부부상운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옥자대명 왕진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지 않게 하는 팔길상보병과판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작했으며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銀나노 처리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 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그러나 국내에 수맥과 수맥파를 정확히 찾아내는 인사는 스님및분과 몇분의 신부 그리고 일반인들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대학에 수맥감정학과가 있고 수맥감정사무소의 수맥감정법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산악지역의 경우 2002년 일환자 30명에 대한 가정 수맥파 감정을 실시한 결과 29명의 가정에서 강력한 수맥이 흐르고있어 수맥파가 생체리듬을 파괴시켜 암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암뿐아니라 각종 중증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발표는 영국과 프랑스등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다. 핵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미세한 파장임으로 오렌경멸에 의해 감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